

## בֵּית ספרִים (책의 집)

##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한동일 씀, 인티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느님은 아홉 한 분뿐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중세의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날권만을 가지고 살았기에,  
 자신이 소장한 성경 가운데 어떤 한 구절을  
 자기 삶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보고 듣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선택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지요.

로마 가톨릭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성경의 한 줄을 삶의 신조로 삼아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한 사람들을 통해  
 수많은 수도회가 창립되었고,  
 그들의 바램은 바로 그런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위대했던 점은 영웅적인 이야기에 있지 않고  
 바로 성경의 한 줄을 몸으로 살아내고자 했던,  
 단순하고 끝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들처럼 성경의 한 줄대로 살 수 있다면  
 나의 삶 자체가 그 한 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하여  
 살고 싶고 따르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나요?

제51권 28호

2025년 7월 13일(성령강림절 후 다섯 번째 주일)

제109회 총회주제 :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겔 37.14, 행 9.31)

**안산교회는** 1974년 4월 여천군 월내리에서 설립 후 안산동으로 이주하였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여수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앞선 세대를 섬기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꿈꾸는 공동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남 여수시 안산1길 172-10 59662

교회 (061) 691-7315 Fax (061) 691-7320 목양실 (070) 4292-8377

## † 안산가족 소식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우리교회의 예배를 소개합니다.



- 주일 낮 예배: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를 읽으며 예배드린 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 찬양예배: 매월 첫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 수요기도회: 매일성경 ‘그룹 큐티 나눔’을 교재로 활용합니다.
- 새벽기도회: 매일성경 성서일과표를 활용하여 주 4회(화-금) 모입니다.
- 일상기도: 다락방과 중보기도 제목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기도합니다.

1. 예배 ① 주일예배: 오늘은 성령강림절 후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공동기도문과 지난 주일 설교 요약문은 사무실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 배움주일 안내: “운동 저축, 신앙 저축”, 오후 1시 30분, 소예배실
3.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26일(토)~27일(주일), 교회
4. 중보기도 제목
  - 코로나19 극복과 교혼(공존, 공생)을 잊지 않기를
  -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및 한반도의 평화와 빈부격차, 이념 및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하여
  - 한국교회의 회복과 사명 감당을 위해
  - 동역자들(방글라데시, 필리핀, 동백사랑교회, 여은교회)을 위하여
  - 노년의 평화와 고난 당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 † 신앙실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찬송 183장의 시인은 성령의 단비(showers of blessing)를 갈망합니다.  
 불별더위에도 영적 독사와 일상 기도로 새사람이 되기를 힘써 봅시다.

## † 예배 및 자치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선 교회	연 령
주일낮예배	오 전 11 시	본 당	아 브 라 함	남 성 교 우
수요기도회	오 후 7 시	소 예 배 실	에 스 더	61-70세 여성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소 예 배 실	드 보 라	51-60세 여성
아동부예배	오 전 9 시	소 예 배 실	마 리 아	41-50세 여성
청소년부예배	오 전 9 시	청소년부실	한 나	40세까지 여성
YouTube 채널: 여수안산교회   온라인 헌금계좌: 신한 061-691-7315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평화의 동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교회**



주 일 예 배 (성령강림절 후 다섯 번째 주일)


주일 오전 11시	인도 : 송 혁 목사
경배와 찬양	함 께
* 입 레 송	주 찬양
* 예배의 부름	시편 66.1-4
* 송영과 기원	반주, 인도자
* 영 광 송	63장(2절 후, 간주)
함께 드리는 기도	함 께
참회의 침묵기도	함 께
위로와 용서의 말씀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성 시 교 독	시편 25편(성서일과표를 보며)
감 사 찬 송	202장(3절 후, 간주)
기 도	장세중 장로
* 성 경 봉 독	신명기 30.11-14(구약 310쪽)
찬 양	주 안에 기쁨 있네
말 씬 선 포	주 안에 생명 있네
결단의 찬송과 기도	200장(2절 후, 간주)
봉 헌	함 께
성도의 교제	함 께
* 교제의 찬양	382장(4절)
* 축 도	송 혁 목사

\*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헌금은 예배 전,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다음 주 기도 - 김영준 장로

- \* 7월 안내위원 : 배순희, 배유희, 김수영, 서영숙
- \* 7월 헌금위원 : 이상철
- \* 7월 주방봉사 : 2, 5구역

생명의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이 법은  
너희로서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거나 미치지 못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법을 내려다 주지 않으려나?'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할 터인데.' 하고 말하지 마라.  
바다 건너 저쪽에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이 바다를 건너가서 그 법을 가져다주지 않으려나?'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할 터인데.' 하고 말하지도 마라.  
그것은 너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서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신명기 30.11-14/공동번역개정)

배 움 주 일

오후 1시 30분 소예배실  
운동 저축, 신앙 저축 이기도 목사

수 요 기 도 회

오후 7시	인도 : 송 혁 목사
찬 양	함 께
기 도	김희숙 집사
성 경 봉 독	요한계시록 7.9-17(신약 405쪽)
말씀선포와 기도	144,000과 셀 수 없는 무리
축 도	송 혁 목사


다음 주 기도 - 김양자 권사

일 상 기 도 (매일성경)

날짜(요일)	목상 본문	17일(목)	요한계시록 11.14-19
14일(월)	요한계시록 9.13-21	18일(금)	요한계시록 12.1-17
15일(화)	요한계시록 10.1-11	19일(토)	요한계시록 13.1-10
16일(수)	요한계시록 11.1-13	20일(주일)	요한계시록 13.11-18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여수지역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

지 난 주 일 말 씬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갈라디아서 6.11-16)

성서일과표/열왕기하 5.1-14, 시편 30.1-12, 갈라디아서 6.11-16, 누가복음 10.1-12, 17-20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번 주 성서일과표의 열쇠 말은 '변화'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주어진 말씀들을 읽으며 킹스 싱어즈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You are the New Day,"라는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여기서 '새날'은 새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새날이 온다고 저절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도리어 '낱아지는' 과정이라고 해야 하겠지요. 따라서 새날이란 선구자 혹은 개척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동일 전 신부님은 이렇게 권합니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오하고 요묘한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과거에 속하려는 나와 새로운 길을 가려는 나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몸부림을 겪기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함은 그 자체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의 여정은 그 모습을 찾아가고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찾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우리 각자의 신성함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열왕기하 5장에는 하나님께서 한 이방 사람의 악성 피부병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아만이고 당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던 아람의 군대 사령관으로서, 왕이 아끼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시중을 들던 한 이스라엘 소녀와 친한 대우에 익숙했던 종들의 설득으로 우여곡절 끝에 피부병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서 기자는 나아만의 살결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어린 소녀'를 떠올리게 하는 말들이입니다. 그가 치유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과 자존심 같은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늘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이며,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화,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볼 수 없겠지요.

누가복음 10장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악한 영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항복하더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하시며, "악령들이 복종한다고 기뻐하기보다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성과와 성취를 갈망하며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의 인정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과 예산을 가진 크고 안정적인 환경을 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며 자랑하지요.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너희가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요. 바울은 성도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줍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존재로 변하고 있는나가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한 가지만 생각해보지요. 변화는 죽음을 제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흔히 종말과 허무로 여기며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죽음은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와 구원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시공간의 차원에서 영원의 차원으로의 변화이기에 우리는 죽는 순간 부활과 종말의 생명 완성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로 마무리하는 인사로, "이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들에게 평화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긍휼은 바로 이런 존재의 변화에 집중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뜻이겠지요. 세상의 인정이나 성공이라는 어떤 표지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맛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선물로 찾아온 새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구자, 개척자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와 긍휼을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고 있습니까? 살롬.